

이상원 | 외환분석부장 (제 7165)

- 주요 뉴스: 미국 5월 고용보고서, 완만한 고용 둔화와 견고한 임금상승세 시사
 - 미국-중국, 6월 9일(월) 런던에서 무역협상 재개 예정
 - ECB 정책위원들,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이견 표출(일부는 동결 지지)
 - 독일 경제지표(수출, 산업생산),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성장둔화 시사
- 국제금융시장: 미국 경제에 대한 관세 충격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위험선호 개선
 - 미국 주가 상승[+1.0%], 달러화 강세[+0.5%], 미국 금리 상승[+1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은 고용 호조, 마-중 무역협상 기대로 100여일 만에 6,000pt 상회
유로 Stoxx600은 독일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0.3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,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 완화로 상승
유로화 가치는 0.4% 하락, 엔화 가치는 0.9% 하락
 - 금리: 미국(10년물)은 연준 금리인하 기대 감소 등으로 2주 만에 4.5%대 재진입
독일은 ECB 금리인하 종료 전망에 기반한 단기금리 상승세 지속(2년물 +1bp)

※ 뉴욕 1M NDF 증가 1357.27원(전일 NDF 증가 대비 0.35% 상승). 한국 CDS 보합

		6/6일	6/5일	전일대비			6/6일	6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000.4	5,939.3	+1.03%	국채 금리 10y	미국	4.51%	4.39%	+12bp
	유럽	553.64	551.88	+0.32%		독일	2.58%	2.58%	-0bp
	중국	3,385.4	3,384.1	+0.04%		영국	4.64%	4.62%	+2bp
	일본	37,742	37,554	+0.50%	CDS 5y	한국	28bp	28bp	-0bp
	한국	휴장	2,812.1	-		중국	48bp	50bp	-2bp
환율	달러지수	99.19	98.74	+0.45%	위험 지표	EMBI+	371	379	-8bp
	유로화	1.1397	1.1445	-0.42%		VIX	16.77	18.48	-9.25%
	엔화	144.85	143.53	-0.91%		WTI유	64.58	63.37	+1.91%
	위안화	7.1926	7.1777	-0.21%	원자재	구리	484.8	493.3	-1.72%
	원화	휴장	1,358.4	-		금	3,310.4	3,352.7	-1.2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ì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5월 고용보고서, 완만한 고용 둔화와 견고한 임금상승세 시사

- 노동통계국(BLS)이 발표한 5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(nonfarm payroll)는 13.9만명으로 전월(14.7만)에 비해 감소했으나 예상치(Bloomberg 12.6만명)를 상회. 실업률은 4.2%를 유지했으며,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.4% 상승(4월은 +0.2%)
- Wells Fargo는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뿐만 아니라 해고에도 신중하게 만들었다고 평가. 향후 인플레이션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, 연준이 노동 시장 둔화에 반응하려면 더 명확하고 지속적인 부진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추정
- Employ America는 노동 참여율이 하락(62.6 → 62.4)하지 않았다면 실업률은 상승(→4.3%)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노동시장이 미미하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
- 한편, 뉴욕 연은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(Nowcast)는 5/30일 +2.42%에서 6/6일 +2.33%로 하락했으며,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에 미친 영향은 +0.01%p로 제시(실업률의 영향은 0.00%p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-중국, 6월 9일 런던에서 무역협상 재개 예정

-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, 베센트 재무장관, 러트닉 상무장관, 그리어 USTR 대표가 6월 9일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무역협상과 관련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회의는 매우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언

■ ECB 정책위원들, 추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이견 표출

- 센테노 정책위원(포르투갈),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은 '25년 초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%에 근접할 것이며 이는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에 해당한다고 경고
- 뮐러 정책위원(에스토니아), ECB의 2% 인플레이션 목표는 사실상 달성되었으며 유로존 경제 성장세가 앞으로 몇 년간 상당히 온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
- 카자크스 정책위원(라트비아), 매 정책위원회 회의마다 정책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7월 정책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

■ 독일 경제지표,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성장둔화 시사

- 독일 연방통계청(FSO)이 발표한 4월 수출은 전월 대비 1.7% 감소한 가운데, 이중 對EU 수출은 0.9% 증가한 반면 對미국은 10.5% 감소. Hamburg Commercial Bank는 향후 수출은 EU 성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對미국 협상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
- 산업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1.4% 감소했으며, Capital Economics는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가 독일 산업생산에 부담을 주고 있어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

■ 캐나다,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관세 영향은 우려에 비해 제한적

- 연방통계청, 실업률이 7.0%로 상승(4월 6.9%)했다고 발표. 이는 '16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(팬데믹 제외). 실업자의 고용 전환 비율은 22.6%로 '24년 (24.0%)을 하회. 단, 고용자수는 예상(1.0만명 감소)과 달리 0.88만명 증가
- BMO Capital Markets은 아직 관세의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이지만, 자동차·금속 산업만이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(고용자수 증가 등에 비추어 볼 때)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평가

■ 인도·러시아 중앙은행, 예상보다 강한 통화정책 완화 조치 발표

- 인도 중앙은행(RBI), 6월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6.0%에서 5.5%로 0.5%p 인하. 이는 예상(-25bp)을 상회하는 조치이며, 말호트라 총재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
- 러시아 중앙은행(CBR), 6월 이사회를 통해 정책금리를 21%에서 20%로 1%p 전격 인하. 단, 성명서를 통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둔화되고 있으나 내년 중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긴축적인 여건을 유지할 것임을 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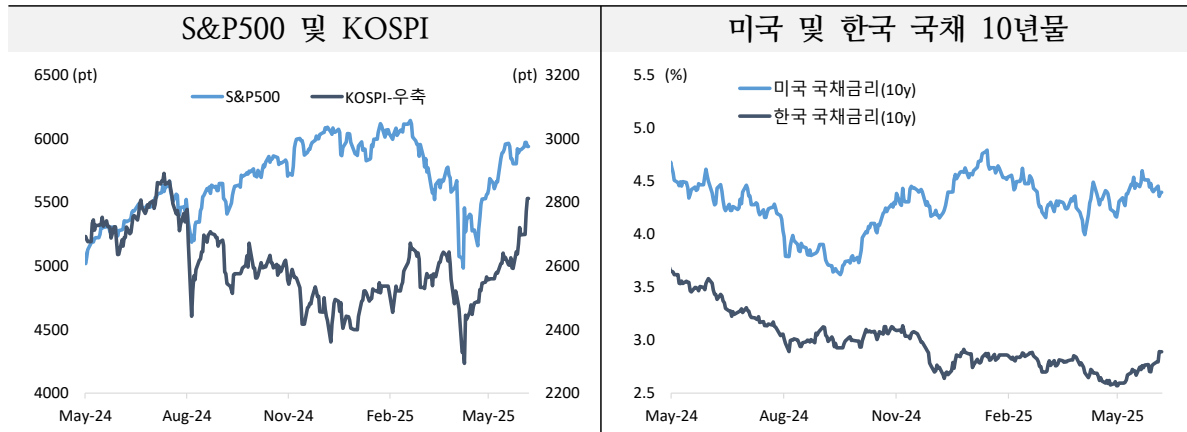
■ 태국 물가 상승률, 2개월 연속 하락. 정부는 전망치 하향

- 상무부, 5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월 대비 0.57% 하락했다고 발표 하면서 '2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0.3~1.3%에서 0.0~1.0%로 하향 조정. 무역정책전략국장은 6월에는 반등이 예상되지만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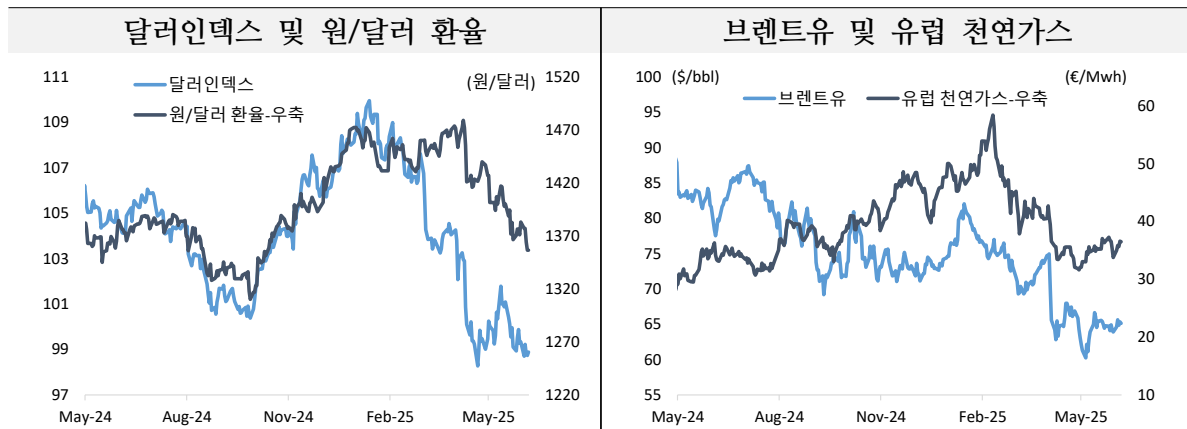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 4월 도매재고, 중국 5월 무역수지(\$1,010.5억), 5월 소비자(-0.2%)·생산자(-3.1%) 물가지수, 일본 1분기 GDP(확정치), 4월 경상수지(¥2.57조), 멕시코 5월 소비자물가지수(+4.4%), 대만 5월 무역수지(\$66.4억, 이상 Bloomberg 전망치) 등 발표 예정(6.9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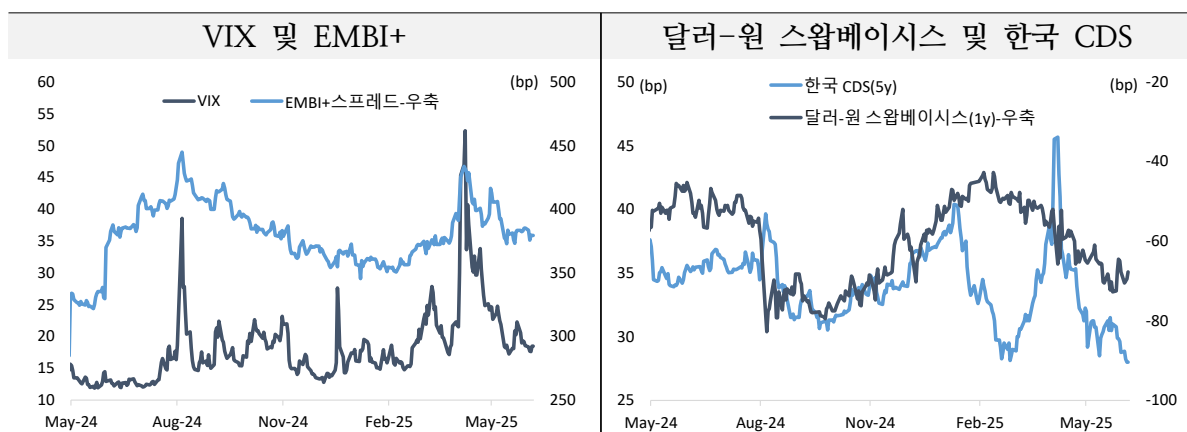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